

경우 통닭뿐만 아니라 부분육을 아무 가게에서나 쉽게 살 수 있게 된다면 전체 소비량은 더 늘어나라 믿는다.

다섯째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어야 하겠다.

이 역시 헌신적으로 협동단결하여 용기있게 대처해야 되겠지만 양계업이 축산업중 3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배려를 받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예를 든다면 소비촉진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가공 저장시설의 지원 혹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예시, 선도 등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합리적인 사양관리 경영으로 생산원가를 낮추어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다.

물론 적자수출이기는 했으나 수년전에 중등으로 계란이 수출된바 있었던 것으로 볼때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리라 본다.

이상 가격이란 생산과 소비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므로 소비증대 방안에 주안을 두어 열거해 보았다.

물론 앞으로 소비가 늘어나

리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양계여건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는 일본이 인구 1억1천만에 닭숫자 2억9천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4천만에 닭숫자 5천만인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다른 축산물의 증가추세에 비해 양계산물의 증가추세가 현저하게 둔화된 상태이므로 사육자들의 단합된 힘은 물론 유관산업과 행정부처까지 합심하여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증대에 힘써야 하겠다. 이것은 또한 국민건강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박 규 덕

(동방유랑 사료사업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말은 흔히들 일의 근원을 따지고자 할 때 많이 쓰곤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계산물가격결정의 주도권은 과연 누가 쥐고 있는가? 실제 양축경험이 없는 본인으로서는 선뜻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망서려진다.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러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월간양

계 편집부에 감사드리고자 한다. 본인은 이 지면을 통해 축산업계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니 그보다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가격안정을 바라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문제다. 축산인, 그들은 바로 생산의 주체이자 곧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 말엔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얘기가 될 것이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계란은 도시생활자중 중류층 이상에서 주요 부식으로 소비될 정도였다. 그러나 생활수준향상

과 소비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계란은 이제 그 옛날 소위 '값싸고 영양가 많고 맛있는 식품'으로서의 명성은 사라져버린 감이 있다. 요즘 중상류층은 이제 육가공품과 육가공품소비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를 입증해주는 것이 바로 축산물의 연도별 소비추세인데 육류-특히 돼지고기-나 우유가 계속적으로 많은 소비증가를 해온 반면 계란이나 닭고기의 소비증가율은 그다지 크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4천만 인구중 농촌인구는 천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무한한 축산물 소비시장임에 틀림이 없다.

84년초 농수산부집계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수수는 약 3천만수. 이들의 산란율을 평균 70% 정도로 볼 때 1일 계란 생산은 약 2,100만개다. 만일 농촌인구 천만명이 하루에 한 개씩 계란을 먹는다면 도시로 공급되는 계란은 불과 천백만개. 이것을 나머지 3천만명의 도시인들이 소비하게 된다면 계란의 품귀 현상이 생기지는 않을까? 물론 이것은 본인의 가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난가는 급등하고 양계인들은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환희속의 나날들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환희의 순간들도 잠시뿐, 다른 축종의 양육가들이 양계쪽으로 약삭빠르게 전업을 하여 곧 공급과잉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축산업계의 현실

이었던것 같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누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 보다 체계적인 사육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지금까지의 양계산물소비추세는 양계잡지의 양계산물 가격변동표를 한 번이라도 눈여겨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소비추세파악과 더불어 계속되는 자연적인 소비증가율을 합쳐 계산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육규모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은 관계기관및 단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계절별 적정규모와 실제 사육규모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양축가 스스로 사육규모를 조절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선 사양가의 관계기관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런 점에서 현재 월간양계에서 매월 전국조생추출하수를 조사하여 게재하는 것이 우리 축산인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하여 계속적인 게재를 부탁드리며,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300개/이는 모사료회사, 모부화장이 내세우는 산란계 1수당 연간 산란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계란소비목표인 것이다. 아직까지 그에 반도 못마치는 실정이고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바로 산란계시장이라 볼 수 있다. 단 이 목표달성의 주체는 바로 우리 축산

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두번째는 유통체계의 개선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축산물의 유통체제에 가장 율화통이 터졌던 본인의 경험이 새삼 새로워진다. 지난 해 육계산지가격이 kg 당 400원까지 곤두박질쳤을 때 비록 양계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팠던 것은 비단 본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으리라 믿는다. 그 당시 닭두 마리를 무려 6천원씩이나 주고 사게 된 것은 분명 유통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다. kg 당 4백원, 2kg 이면 8백원, 거기다 운송비, 수수료, 도계비 등 아무리 후하게 쳐도 어디서 그 어마어마한 3천원이란 숫자가 나왔는지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았다. 산지가격을 떡주무르듯 하는 중간상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선행된다면 가격안정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농촌실정으로는 아직도 자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자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육계란 점을 놓고 볼 때 냉동육수출이란 문제를 생각해 봄직도 하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일본은 지난 해 우리나라 계육 소비량 만큼의 육계냉동육을 수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눈여겨볼 일은 그 수입량의 80%가 우리보다 지역적으로 먼 태국에서

수입했다는 사실이다. 왜 우리는 이처럼 가까운데 있는 엄청난 시장을 두고도 국내에서만 허우적거리야 하는 걸까? 이 문제는 정부는 물론 우리 축산인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하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의 길을 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상소비물량에 따른 육계사육수수의 자율적 조절로 보고 싶다. 특히 육계는 사육기간이 짧은 관제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홍보가 없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 가지 더 홍보나 관측을 담당하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숫자 나열만으로 그치지 말고 경향이나 추세와 아울러 전망이 반드시 홍보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싶다. 이러한 체계가 무난히 지속 유지된다면 육계업자 스스로 사육규모를 조절하여 수요공급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지난 날 투기사업하면 육계사업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안정사업으로서의 명예로운 자리를 굳히게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로 양계산물의 소비증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정통 센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모회사에 의해 시판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본

인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던 센터키 치킨이란 것은 전혀 정통식과 어긋나는 상품이었다고 한다. 물론 소주에 비해 맥주소비가 늘어나는 관제로 닭고기의 소비도 늘긴 늘었으나 그것은 일단 애주가라는 일부층에 의한 소비 증가였지 보다 더 큰 고객인 학생층, 부녀자층에게는 그 센터키 치킨이란 것이 소비촉진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기름기가 흥건한 사이비 센터키 치킨이 아닌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정통 센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날개 돌친듯 팔리기를 비는 마음은 판매회사 못지 않게 양계인들 또한 간절하리라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반값지 못한 소식이 하나 있다. 64원까지 올랐던 특란가격이 각 매스컴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보도로 인하여 한창 가격이 좋아야할 요즘 한달 새에 10원 이상이 떨어져 52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실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계란의 효용가치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가 좋은 나쁜간에 해마다 한 번쯤 떠들어 대는 심장병, 동맥경화증·콜레스테롤 하면 꼭 계란을 들먹거리는 매스컴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겨우 사흘에 한 개 정도 계란을 먹는 나라에서 계란내의 콜레스테롤로 인한 피해 운운한다는 것을 가까운 일

본이나 선진외국에서 본다면 얼마나 꼴불견이겠는가? '매스컴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는 도구'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우리 축산인들은 그 매스컴을 축산물 소비증대를 위한 최대의 무기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기틀을 다져놓아야만 한다.

이젠 창 밖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지난 겨울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시간들이 어느 덧봄의 화사함 속에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양계산물의 가격안정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준비하듯 서서히 굳건히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가격안정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일을 서두르는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외국격언이다. 수년간 계속 반복되고있는 양계산물의 가격불안정은 역시 하루아침에 시정될 수는 없는 일이다.

양계인 여러분 그리고 모든 축산인 여러분. 우리 모두 양계산물가격안정을 위한 발판을 다져나가는데 스스로 앞장섭시다.

● 질서는 징검다리 건너뛰면 사고난다